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총괄·공공건축가 도입 서둘러야"

조동용 의원, 전북 건축정책 부재 지적

지난해 10월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건축혁신방안 중 첫 번째는 영주시, 서울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전국 확산이었다.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 3)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전라북도 건축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공공건축 전담부서의 신설과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전북도의 건축 도시경관의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민센터, 마을회관부터 도서관, 관공서까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크고 작은 공공건축물이 존재하며 우리 지역의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전라북도만의 특색있는 경관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전라북도 건축정책이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공공건축디자인의 질은 외관의 미적 쾌적감뿐만 아니라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변화시키고 관광객을 비롯한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서마다 제각각 공공건축물을 발주?관리하고 있어 지역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질을 유지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전국 확산을 추진 중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지역의 통합적 공공건축디자인이 가능하다고 조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246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이며, 충남도는 올해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64명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그밖에도 광역지자체중 부산, 광주에서 이미 추진중이며, 경북과 경남은 올해 공공건축가 선정과 더불어 공공건축전담부서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생활SOC사업'역시 동네단위로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총괄건축가가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질 높은 건축디자인을 목표로 공공건축물을 설계에 참여한다면 주민의 삶과 마을의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전라북도에서도 제도 도입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단위가 아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전북도의 의지와 추진방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행정인력 증원을"

황영석 의원, "팀장 혼자서 업무 처리… 운영인력 부족"

도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행정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과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을 위해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도에서도 지난 2004년 전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8년 6개 시 지역에 확대 설치했고, 2010년에는 나머지 8개 군 지역에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센터 운영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재 전북과 전주시는 센터장 1명에 선임·기술·행정직 직원까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나머지 13개 시군은 설립 당시와 똑같이 센터장 1명, 기술직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마저 도 센터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업무는 팀장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황 의원은 "현재 팀장 혼자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인허가부터 현장점검, 민원상담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 업무까지 일부 맡고있는 상황이다"며 "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한 후 점진적으로 군 지역 센터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침〉에도 기초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등 개소 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 13개 시군에서는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데다, 관리가 부실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최소한의 행정인력 정도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당 군산지역위, 총선 승리 전진기지 역할"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에 신영대 전 청와대행정관

16일 신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지역을 넘어 전북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으로 신영대 전 청와대행정관이 임명됐다.

16일 신임 신영대 지역위원장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당장의 기쁨 보다는 군산지역위원회를 전북지역 당세확장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밑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대 위원장은 "현재 군산은 조선, 자동차 산업 등의 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원들 간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의 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군산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때"라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중앙정치권과 정부 부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시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완성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임 신 위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행정관과 함께 정책보좌관, 정책비서관 등을 두루 거치며 중앙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신영대 위원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확정적이어서 지역정가는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개최해 신영대 전 청와대행정관을 군산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북연구원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6일 전북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연구원을 방문하여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원 관계자들과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연구원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하반기 연구과제 추진계획 및 도정 사업 발굴 지원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서관 및 연구동 등의 현장을 둘러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북연구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정책에 직결된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도의회 2기 예결특위 위원장에 황의탁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

황의탁 위원장

박희자 부위원장

전북도의회는 제11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을,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을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의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예산·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심사해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함께 도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탁 위원장은 무주군 초대 농민회장, 새무주로타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균형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당 '왜 지금 전북과기원인가?' 토론회

어려운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김광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북희망연구소가 주관한 '왜 지금 전북과기원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6일 전북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주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두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최준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민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서기관, 김경미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진성 기자